



매출 832억 2006 순익 74억

사상최대 ... 1주 25원씩 상장 이후 첫 배당도 실시

YTN은 지난 해 매출 증가와 경영효율성 향상 등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 당기 순이익도 지난 2005년 보다 무려 470%나 급증하며 4년 연속 흑자 경영기조를 이어갔다. 이 같은 경영성과를 토대로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주들에게 1주에 25원씩의 배당이 결정됐다.

YTN은 3월 23일 열린 제14기 주주총회에서 매출 832억 원, 당기순익 74억 원을 골자로 한 2006년 경영실적을 보고했다. 지난해 YTN은 1분기에는 9억 3천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으나 2분기 20억 원, 3분기 13억 9천만 원, 4분기 49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며 큰 폭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499%가 늘어난 55억 7천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은 광고주 저변의 확대와 광고단가 현실화 등으로 매출이 증가세를 지속한 데다 비용 통제와 매출채권 관리 강화 등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 자산운용 강화를 통한 이자수익 증가,



이연 법인세 효과 등으로 경영혁신 작업의 효과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부문별 매출실적을 보면 광고매출이 606억 4천 만 원으로 11.8% 증가해 3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갔고 영상자료 판매 수입도 42억 8천만 원으로 30.2%나 증가했다. 반면 사업수입은 42억 원으로 4.5%가 감소했고 타워 매출도 100억 8천만 원으로 4.1%가 줄어들었다.

표완수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지난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은 콘텐츠 혁신과 경영

혁신을 회사 운영의 두 축으로 삼아 임직원들이 ‘한마음 경영’을 해온 데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올해도 ‘강한 YTN’을 경영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경영성과로 주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김희중 감사, 장지인 사외이사, 박종만 사외이사가 연임되고 이종수 전 바이더웨이 부사장이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또 회사의 사업목적에 테

이터방송 등이 추가되는 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한편 YTN은 이에 앞서 2월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업 설명회(IR)를 열고 지난해 경영성과를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30여명의 기관 투자자와 투자 분석가들이 참석해 YTN의 경영실적 호전과 콘텐츠 혁신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YTN이 과학TV 등 신규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광고단가의 인상요인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경영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YTN의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당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주주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의 경영실적을 보고 드릴 때면 만감이 교차합니다만 올해는 그 느낌이 어느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경제 전반과 광고 시장 등 경영 여건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YTN은 창사 이래 가장 좋은 경영 성적을 주주님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YTN은 2005년 보다 9.5% 늘어난 831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은 55억 7천만 원으로 499.2% 신장됐으며, 당기순이익도 2005년의 13억원에서 7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주주님들에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시겠지만 이익을 주주님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당사의 작은 뜻에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 국내·외 경제는 격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경색은 사회적 불안과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국제유가와 원화 가치 상승은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주름살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 시장은 영역과파, 다면적 경쟁 양상이 심화되었습니다.

YTN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은 콘텐츠 혁신과 경영 혁신을 회사 운영의 두 축으로 삼아 임직원들이 ‘한마음 경영’을 해온 데 힘입은 것입니다. 먼저 2005년 말부터 추진해 온 콘텐츠 혁신 작업의 결과 뉴스 포맷의 다양화와 화면 고급화 등을 이루어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 작업으로 매출 확대와 비용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수익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당사 임직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만하기에는 주변 경영여건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추세 속에 방송시장의 판도는 경쟁력 있는 회사만이 생존할 수 있는 ‘한판 승부의 장’으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YTN은 올해 경영목표를 ‘강한 YTN’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뉴스전문채널로서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YTN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콘텐츠 혁신 지속’과 ‘매출 극대화’, ‘사업 다각화’, ‘경영 인프라 지속 강화’, ‘기술 변화 대응’ 등 5대 역점과제를 선정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1월에는 과학기술부가 공모한 과학TV 채널운영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채널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MPP 체제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 지상파 DMB의 전국화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며 멀지 않아 FM라디오를 통해서도 YTN 뉴스를 송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YTN은 올해도 보다 나은 경영 성과로 주주님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사장 표완수

신년특집 '大 한민족의 재발견' 3부작 제작 후기

산고(産苦)를 끝내며...

지난해 11월 초의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부장: 신년특집 제작해 줘야겠다.

본인: 네? 내용이 뭐죠?

부장: 해외 방송팀이 기획한 것이라는데, 재외동포들과 관련된 것이란다.

본인: 저는 많이 만들어 봤으니깐, 후배들 중에서 시키시죠.

부장: 이번 건은 내가 권한이 없는 일인데...

본인: 그럼 누가 (아~ 그러면 국장) 알았습니다.

3개월여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산고의 시작은 이랬다. 오전 11시에 해가 떠 오후 3시면 지는 알래스카, 하루 3~4시간씩 자는 강행군이 연일 이어졌다. 무덤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 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시 보기 힘들지도 모를 아름다운 이국적 풍경과 수많은 흑,백의 미인들도 내 눈엔 들어오지 않았다. 최소한 하루 3~4건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은 흑한의 알래스카나 짐통터위 남아공에서의 살인적인 일정도 그렇다고 폭설에 의한 비행기 연착이나 제때 배달되지 않았던 방송장비도 아니었다. 바로 이번 다큐멘터리 1, 2, 3편을 관통하며 중요한 축 역할을 해야 했던 뉴질랜드 일정을 취재비 문제로 소화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취재와 제작과정에서 수없이 직면해야 했던 비효율과 몰이해들이었다.

그래서 취재후기를 부탁받고 고민 끝에 결심했다! YTN에서 가장 많은 제작물을 만들어 본 기자라고 자부하며 일반적인 취재후기가 아닌 미래의 더 나은 제작환경을 위한 취재후기를 써야겠다고...

첫째, 취재 인력이 트라이 포드나 테일 등의 방송장비를 챙기는 환경은 지양돼야 한다. 물론 발단은 카메라 기자 한명이 출장을 가는데서 시작된다. 취재가 거의 불

가능하다. 카메라 기자가 아플 경우 대체 인력이 없다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둘째, 짧은 기획기간으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기 힘들다는 아주 원론적인 점이다. 연초에 좋은 기획들을 받아 선별한 뒤 본인의 일을 하면서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잠깐씩 취재해 지정된 방송 날짜에 맞추는 방식은 어떨까? 이번 취재도 연말 휴가기간과 겹쳐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셋째, 30분 제작물의 한계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 30분을 만드나 50분을 만드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호흡면에선 30분 제작물이 더 힘들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공들여 만든 작품의 방송시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오전, 오후, 다음날 새벽 이렇게 방송되는 작품을 보며 서글픔을 느꼈다. 뜻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YTN 내부 사람들도 보기 힘든 특집물...

'훌륭한 특집물 한편은 YTN의 위상까지 바꿀 수 있다.' 이번 '대 한민족의 재발견' 3부작을 만들며 방송위원회 수상작이었던 지난 2001년 '김치의 재발견'을 만들 때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많은 것을 느꼈고 배웠다.

나름대로 방송의 형식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발전이 있었다고 자부한다. 개인적으로 방송의 내공도 쌓였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방송의 꽃이라는 종합편집 과정의 묘미도 충분히 맛본 3개월 여였다.

끝으로 방송 몇 일전 상황 한 토막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지순한, 이성모, 미셀 박 스틸(캘리포니아 조세협평위원), 조승희 차장

<그래픽실>

정지원 차장: 이 그래픽 어때?

지 PD: 아주 좋은데 OK야!

정 차장: 아냐 좀 이상해 다시 하자.

지 PD:?!?! (어, 이걸 내가 자주 했던 말인데)

<장면 바뀌어 종합편집실>

김형도 감독: 원하신게 이런 효과인가요?

지 PD: 90%쯤 근접했는데, 나쁘지는 않다.

김 감독: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죠.

지 PD:?!?! (이것도 내가 자주 했던 말인데)

방송 전 마지막 3주일간 이런 상황은 매번 반복됐다. 그것도 새벽 시간에...

이번 작품의 한 톨 한 톨은 그래서 내겐 소중한다. 그래픽팀 정지원 차장과 YTN DMB의 김형도 감독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한다.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힘든 일정 중에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고생한 이성모 선배에게도...

지순한 사회부

단 신

YTN, 스카이라이프 공로상 수상

표완수 사장은 2월 28일 스카이라이프 개국5주년 행사에서 우수프로그램을 공급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



한영규 뉴미디어팀장,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한영규 뉴미디어팀장이 3월 5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12회 케이블TV의 날 행사에서 케이블TV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민수 유충섭 김재형 권준기 기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장민수 유충섭 김재형 권준기 기자가 '롯데월드 건물 안전 심각한 위협' 보도로 197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 보도부분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월 6일 서울 프레스센

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김태현 기자, 기협회장으로 추대

김태현 기자가 기자협회 8대 YTN지회장으로 추대됐다. 기자협회 YTN 운영위원회는 3월 12일 운영위원회회의를 열어 차기 지회장에게 김태현 기자를 추대했다. 취임식은 3월 30일.



— | 주요 인사 출연 | —

박중훈 (클로즈업 2.27)



데니스 강 (뉴스Q 3.12)



이봉주 선수 (뉴스Q 3.19)



이달의 기자상 취재기

기사는 아이스크림과 같다

보도가 나가기 일주일 전, 휴일 오후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무렵 어김없이 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위낙 부지런한 캡 때문에 사슴들은 피곤하다 - 이견 칭찬을 한 것도 아니고 비난을 한 것도 아녀...) 롯데월드 건이 있으니 취재를 해 보라는 지시였다.

몇 번의 접촉 끝에 조심스러워하는 취재원을 대면할 수 있었다. 취재원은 롯데월드 건물 안전에 관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내부문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증거자료를 요구했고 취재원이 문건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사진 몇 장만으로도 순간 큰 기사라는 판단과 함께 흥분이 되기 시작했다. 문건을 입수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대부분의 취재원이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대기업을 상대하는 일이라 자신의 신분노출을 많이 우려했다. 때문에 처음 보는 기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 걱정스런 부분도 많았으리라 짐작이 간다. 취재원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취재원과 식사도 함께 하면서 설득을 시도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됐고 마침내 취재원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부터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롯데월드의 안전진단 결과가 담긴 수백 장의 문건을



로온 내용들이 속속 입수됐다.

특히 문건의 경우 방대한 자료인데다 건축 전문용어들이 많은 탓에 전문가들의 자문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국내에 건물 안전 특히 천장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가는 매우 드물어서 자문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또 전문가를 찾더라도 롯데라는 대기업과 관련된 일이라 인터뷰가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모든 취재와 각 기자들의 기사 작성, 그리고 그래픽팀 서영석 선배의 도움을 받아 CG 작업까지 마쳤다. 이제 마지막으로 롯데월드의 입장을 듣는

손에 쥐고 회사로 돌아왔고 그 즉시 취재팀이 꾸려졌다. 김재형, 권준기 기자가 투입됐고 영상취재부에서는 이승준 기자를 전담으로 지정해 주었다.

보도 시점은 ·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 롯데월드가 영업장을 전면 폐쇄할 때까지 기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연속 기사를 내보내기로 계획을 잡고 취재에 착수했다. 취재과정에서도 새

과정만을 남겨 두었다. 하지만 보도는 당초 계획보다 며칠 앞당겨졌다. 자세한 이유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른바 부녀회장으로 통하는 경찰팀 이지는 기자의 공이 컸다는 사실만 밝혀두기로 하겠다.

보도가 나간 지 사흘 만에 롯데월드는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영업장 전면 폐쇄라는 조치를 취했다. 생각보다 빨리 결말이 나 버리는 통에 준비한 기사들을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영업장 폐쇄 전날까지도 연간회원권을 판매한 롯데의 부도덕함과 안전 불감증을 고발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보도 과정에서 새삼 느낀 교훈은 제목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사는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이다. 손에 쥐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한다. 요즘처럼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해 1분이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모 방송의 경우는 YTN 보도가 나갈 때 까지도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가 보도가 나간 뒤 자료 일부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1시간여 만에 방송을 하는 신속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는 손에 쥐는 순간부터 녹기 시작한다는 사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하는 실수를 범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캡을 중심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사회부 경찰기자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상취재부 그리고 부장과 데스크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민수 사회부

최후의 낙원 'DMZ' 제작기

천국에서 7개월간의 행복

분단의 상징 "DMZ". 반세기 가까이 사람의 접근이 금지된 이 땅에는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 '오작교'는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다리로 DMZ 자연생태를 취재하고자 하는 취재팀엔 매력적인 장소다. 해마다 봄이 되면 북한강에 서식하는 민물 어류들이 이곳에서 산란을 한다. 산란한 알들이 부화하고 치어 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후 성어가 되면 다시 북한강 하류로 내려가는 북한강의 종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이곳은 각종 야생 동, 식물의 천국이기도 하다. 산양, 수달, 뱀장어, 샛, 고라니 등 좀처럼 보기 어려운 포유류들도 이곳에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DMZ 자연다큐멘터리 기획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취재팀의 보안과 안전 문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지뢰와의 싸움이었다. 발목 지뢰, 대인지뢰 등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지뢰는 취재기간 내내 취재팀을 괴롭혔다. 취재를 위해서 민통선(민간인통제선)통과를 승인해주는 군부대의 협조도 제한적이었다. DMZ는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몰 전, 후 출입이 통제되었고 군 정훈장교의 안내 없이는 DMZ안의 취재동선도 제한적이었다.

DMZ 수중촬영은 더 위험하다. 군 정훈참모는 취재팀의 수중촬영에 반대했다 위험하고 사고발생 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중이라 지뢰탐지가 됐을 리 만무하고 장마나 홍수로 고지대에 있는 지뢰들이 떠 내려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팀은



자연다큐 수중취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어렵사리 수중취재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화천 오작교에는 타사 자연다큐멘터리 팀(춘천KBS, MBC, EBS)도 취재를 시작했다. 타사의 취재인원과 취재장비는 부러울 뿐이다. 번번한 망원렌즈 하나 없이 시작한 취재팀보다 타사의 많은 취재인력과 고가의 장비는 묘한 경쟁 심리를 유발했다. 이러한 경쟁 심리는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도 토종 민물고기의 산란장면을 촬영하지 못한 다른 다큐멘터리 팀보다 YTN 취재팀은 꺾기, 금강모치, 피라미 등 많은 민물 어류의 산란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취재팀의 수년간 수중촬영에 관한 노하우와 민물 어류의 전문지식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일까? 매년 1월 화천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겨울축제 산천어축제가 개최된다. 축제기간 중 화천군은 약 60만 톤 산천어 성어를 방류한다. 화천 인근계곡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만 마리의 산천어 치어를 방류했다. 그런데 화천에는 산천어가 서식하지 않는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산천어 서쪽에는 열목어가 서식한다. 산천어를 방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류되는 산천어도 우리나라 산천어가 아니다.

이곳에 방류되는 산천어는 일본산 산천어 아마고(amago)와 야마네(yamane)의 인공 교잡종이다. 이 교잡종은 우리나라 산천어와는 크기도 다르고 먹이나 생태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산천어는 서식지도 차가운 계류에서만 서식한다. 그런데 화천에서 방류된 산천어는 계류뿐 아니라 북한강 상류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YTN 자연다큐멘터리 팀의 취재로 새롭게 밝혀졌다. 많은 국내 어류 생태학자들은 화천 산천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생태교란과 국내 민물어류들과의 유전자 교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천은 DMZ 오작교 하류에 있어서 오작교 생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DMZ 이곳은 인간의 이기와 무지의 간섭만 받지 않는다면 자연이 숨쉬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곳에 사는 산양, 수달, 고라니 그리고 민물 어류들... 지난 7개월간 자연다큐멘터리 취재하면서 그들의 서식환경과 자연생태를 취재할 수 있었던 건 행복이었다. 그동안 자연다큐멘터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사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7사단, 자연다큐 프리랜서 윤순태 감독, 그리고 어류연구원인 김대천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문세 영상기획팀

보도국 운영계획 설명회

뉴스는 YTN이다

보도국운영계획 설명회가 2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상표 보도국장은 지난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YTN을 우뚝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년간 보도국을 맡아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전임진 국장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보도국 구성원들의 다양한 뜻을 조화롭게 수용해서 사심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가 다시 보도국장 직을 맡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지난 임기 때 있었던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 선후배에게 걱정을 끼치고 상처를 주었던 점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한층 겸손하고 한 단계 성숙하게 주어진 책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을 4개 분야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속적 콘텐츠 혁신입니다. 콘텐츠 혁신으로 궁극적으로 '뉴스는 YTN이다', 즉 뉴스의 1등 방송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YTN'입니다.

둘째는, 조직의 창의성과 인적 경쟁력 제고입니다. 뉴스를 다루는 우리들의 최대 무기는 창의력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디지털 뉴미디어의 신속한 접목과 활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UCC 등 뉴미디어 콘텐츠들이 붓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상통화를 통해 바르셀로나를 연결한 세계최초의 생방송을 우리가 했습니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대신 공정정보 등 공정방송의 실현입니다.

콘텐츠 혁신

콘텐츠혁신 작업은 재작년 중반에 시작돼서 제가 지난번 보도국장 직을 맡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YTN이 지난 10년간 지상파뉴스의 형식과 구조를 그대로 답습할 뿐, 그것을 발전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죠.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에도 우리 매체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국 TV뉴스사에서 깨지 못한 껍질을 우리가 한번 깨보자고 시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좀,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비주얼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영상리포트, 영상단신, 영상히스토리, 앵커리포트 등 이른바 분화콘텐츠들로 다양화해서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고 YTN만의 차별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각 방송에서 우리가 개척한 포맷들을 따라오는 것을 봐도 우리의 시도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혁신콘텐츠에 대한 열의와 성과는 인사평가에서 부팀장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혁신은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혁신과 연관된 선택과



집중은 YTN의 장점이자 우리가 살길입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이슈를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하면 타 매체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로 신속성 있게 대응하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국의 뉴스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의 창의성과 인적 경쟁력 제고

YTN은 광의의 지식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YTN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이 없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깊게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서 뭔가 남과 다른 거, 창의적인 거, 새로운 것을 생산해보자는 겁니다. 창의성과 인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보도국운영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부장 팀장 차장의 재량권을 중시하고 많이 맡기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의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취재부서장은 인력운용과 콘텐츠 생산에 다양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인원배정을 신속성 있게 할 수 있죠. 결국 우리와 같은 조직에서 창의력은 경쟁력의 요체지요. 제가 일일이 간섭하면 이런 창의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섭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권한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도 엄격하게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언론을 열겠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소통을 한마디로 혈액과 같은 겁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조직은 죽지 않습니까. 상하좌우 거침없이 의사가 소통되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뉴스부 부서계시관 접근권 설정을 다 풀도록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면 다 풀어라, 전체가 다 열람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막힌 곳을 뚫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 역시 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필요하다면서도, 막상 소통의 장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도국 회의 시간에도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

극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CQ와 부팀장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인력 확보와 관리운영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선발은 조속한 시일 내에 총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TV 설립과 향후 뉴스전문 FM라디오 채널 설립 등에 대비해서도 인력 수요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기존 인사평가 시스템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보가며 발전적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국내외연수와 전문과정(컴퓨터, 뉴미디어관련 분야 등) 등 재교육과 연수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들은 전문분야로 들어가면 아직도 후한 점수를 못 받습니다. 시청자, 독자들의 수준도 엄청 높아졌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 필요성을 회사 전체에 각인시키고, 시작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특종을 하고 낙종을 하는 것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상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극을 주는 시스템이 정착해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력과 인적 경쟁력 제고의 필요충분 조건은 바로 공정한 인사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 없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른바 연이라는 것을 떠나 능력위주의 제대로 된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수가 납득할 수 있고 원칙이 분명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미디어의 신속한 접목과 활용시스템 구축

이른바 UCC를 비롯해서 미디어의 뉴 트렌드와 IT 신기술을 신속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방송에 접목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 중 하나입니다. UCC콘텐츠를 활용하는 작업은 지난 국장 시절부터 역

부서탐방 - 마케팅국

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총 망라해서 뉴스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싸이월드 제보영상 활용이나 야후나 다음 등 포털과의 연계 협력도 확대해야 할 주요과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진행 중인 디지털 뉴스룸 추진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우선 구성원들이 뉴 콘텐츠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갖는 것과 디지털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런 뉴 콘텐츠가 바로 YTN의 블루오션입니다. 우리가 선점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트렌드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게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뉴미디어시대에 강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최기훈 기자가 바르셀로나에서 통신기기전 사회에서 휴대폰 화상전화로 라이브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화상 라이브방송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아마 1,2년 내에 고화질 휴대폰 화상전화 라이브 방송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정방송 실현

올해는 대통령선거의 해입니다. 선거의 해에는 특히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논란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를 정치부장으로 치렀습니다. 선거 기간이나 선거 후에 여야 어느 쪽으로부터, 승리자나 패배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이렇다 할 클레임 제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거 보도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견해를 보도에 이입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기능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거르고, 데스크에서 거르고, 부장과 씨큐, 국장이 항상 신경 써서 조율해야 합니다. 선거전은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선거보도 제대로 해서 YTN의 위상에 흠결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조의 공정방송위원회와 늘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할 자세가 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자가 시스템에 의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완성하고자 했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인사평가제도라든지, 출장비용 산정과 정산, 여러 가지 의사 결정구조의 시스템화 등 제반 추진과제들은 제대로 제도화하고 더 발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결국 YTN을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걸로 모입니다.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YTN'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열정이고,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게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개국 이후 12년 동안 거친 풍파를 헤쳐 오면서 이만한 매체로 키운 그 자부심 위에 열정과 패기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는 안으로는 정성스러움을 다하고 밖으로는 항상 공경하라는 내성외경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항상 內誠外敬하는 자세로 YTN을 한국의 최고로 우뚝 세우는 일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오늘도 쉬지 않는다



마케팅국은 매월 실적이 가장 우수한 영업사원을 '이 달의 영업사원'으로 선정하는 등, 올 한해 매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왼쪽부터 하정완, 최종인, 실명수 마케팅 2팀장, 남궁용, 김백 마케팅국장, 이병우, 박기용, 이성근, 김명섭, 김남식, 전병곤 차장

YTN 수익을 위해 뚝뚝 땀 흘린 마니아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는 마케팅인이라 칭한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YTN 마케팅인들의 하루 일과를 쫓아가 본다.

아침 출근과 동시에 혹시나 밤사이 광고주들 인사발령이 난건 아닌지 경조사가 있는 건 아닌지 신문을 꼼꼼히 뒤적이다. 축하란과 조의금을 보내고 나면 오늘의 광고주와의 만남(일명 미팅) 약속과 이동 경로 등 나름의 작전에 돌입한다. 모 마케팅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루에 4군데 이상 광고주들을 못 만나면 회사에 들어오기가 매우 미안하다고 한다.

광고주와의 미팅은 가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서도 있지만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 한번 내 주십시오'라는 한 수 집고 들어가는 광고업계의 '갑'과 '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광고주에게는 신뢰감과 확신을 안겨줘야 하고 본인에게는 실적이라는 압박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때론 과장된 액션과 희망적인 거짓말, 미소를 잃지 않는 반듯한 자세까지 그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은 밸런트를 능가한다.

점심 즈음, 광고주들은 점심시간마저 업무에 여념이 없다. 어렵게 자릴 마련한 타 광고주와의 점심 도중에도 끊이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는 마음속으로만 외칠 뿐 몹시도 상냥하게 응대한다. 하지만, 광고주들은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요구사항만을 급하게 건넨다.

'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고 한 템포 끊겨버린 점심을 이어간다.

어느 날, 광고를 중단하겠다는 모 광고주의 연락이 왔다. 광고주 홍보실에 의하면 제품의 특성상 구매 집중시기인 졸업, 입학시즌이 지나 광고를 중단한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마케팅인들은 올 필요 없다는 광고주를 겨우 설득하고서 미팅을 잡는다. 오후 5시 미팅, 시간 약속만큼은 마케팅의 생명이고 신뢰의 기본이다.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커피 두 잔을 뽑아놓고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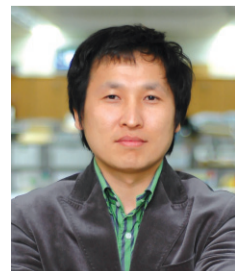
광고주는 현재 타 업체와 미팅 중이니 기다리라는 야속한 말만을 남기고... 시간은 30분을 훌쩍 넘어 5시30분.

이미 식어버려 줄 수도 없는 커피 두 잔을 다 마시고 나서야 광고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등장한다.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해서 듣지만 향후에도 YTN을 꼭 기억해 달라 무언의 약속과 미팅에 응해준 것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돌아선다.

치킨 몸을 차에 싣고 남산 소월길을 따라 회사로 들어오는 길. 형형색색 요란한 옷을 입은 관광객들,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연인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남산의 4계절까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한가로워만 보인다. 잠시 차를 세우고 한가로이 봄 햇볕도 쬐고 싶은 소박한 여유도 그들에게엔 호사로운 사치에 불과하다.

마케팅은 광고주와의 미팅이 끝난 후에도 또 퇴근 후에도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일의 마케팅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고 기 방영된 광고를 분석해 줘야 하는 등등... 또, 술이 고된 광고주의 전화를 거부할 수 없어 접대에도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술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오해하겠지만 쉬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 지하주차장엔 귀가를 못한 마케팅인의 차량만이 하루를 마감하며 휴식을 취할 뿐이다.

광고주를 한번이라도 더 만나 YTN의 존재를 다시금 인식케 한다면, 그들은 자존심 따위는 회사 서랍 속에 넣어둔 채 밤을 지새우더라도 달려갈 것이다. YTN 마케팅은 오늘도 쉬지 않는다. 내일도... 모레도...



박진연 마케팅기획팀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최우수작품상 수상기

내일의 한국인

“최초, 최후의 다큐멘터리스트 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실패로 도전의 가치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 도전의 열매보다 과정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이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작

주어진 두 달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학기말 고사와 함께 진행된 한 달간의 프리 프로덕션 기간에는 문헌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해 첫 번째 스크립트의 밑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에” 다인종, 다문화라고 하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었습니다.

역사학, 사회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보다 깊이 있고 진지한 관점을 다큐멘터리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진중권, 홍세화, 임지현과 같이 정보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이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섭외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 끝에 그들의 목소리를 작품 속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중간 중간에 삽입한 것은 13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의 결합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다큐멘터리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양한 장르적 결합을 통해 대학생다운 창의력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수상

경기도와 YTN이 주최하는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은 영상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 싶은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지난 10회, 11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는 결과보다는 그것을 준비했던 과정이 더욱 값진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순간은 찰나와도 같지만 그 힘들었던 과정은 피와 살이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YTN과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권명국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4학년



왼쪽부터 권명국, 김정운, 박하얀, 김지현

제12회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수상작

| 시상 | 작품명 | 수상자 |
|--------|----------------------|---------------------------------|
| 최우수작품상 | 내일의 한국인 | 김정운, 권명국, 김지현, 박하얀 한동대학교 |
| 우수작품상 | 대한민국, 家가 好好 | 홍진아, 주원정, 김윤미 서강대학교 |
| | 다민족, 더문화, 다함께 | 채영길 Univ. of Texas at Austin |
| 장려상 | Over there | 김도훈, 객계영, 이승우, 조형택, 문웅주 단국대학교 |
| | "경기도 도약의 열쇠, 빗장을 풀다" | 이주영, 이침술, 임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
| | 도, 레, 미 | 박경태, 박준성, 김용래, 노태인 동서대학교 |
| | "나의 대한민국, 우리의 코리아" | 이민수, 김현수, 박규영, 김세봄 고려대학교 |

단신

연합동호회실 오픈

YTN 연합동호회실 개소식이 3월 8일 지하5층 동호회실 앞에서 열렸다. YTN에는 축구동호회, 사진동호회 등 9개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기업설명회

국내외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표완수 사장이 지난해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YTN-연합인포맥스, 양해각서 체결

YTN과 금융정보매체인 연합인포맥스는 3월 15일 YTN 본사에서 프로그램 연동형 데이터 방송 등 디지털 방송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YTN은 데이터 방송을 위해 필요한 실시간 방송화면과 VOD를, 연합인포맥스는 금융데이터방송과 관련된 기술과 사업 모델에 대한 사업 지식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제1회 3.1절 마라톤 대회



YTN과 한겨레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3.1절 마라톤 대회'가 한강 시민공원 여의도 부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88돌 3.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과 독립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 깊은 레이스를 가졌다. 각계 인사와 아마추어 마라토너 등 모두 7천 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30km 코스와 하프 코스, 10km 코스 등 총 3개 코스로 나뉘어 치러졌다.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2월 23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시상식에서 한동대 김정운 씨 팀의 '내일의 한국인'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와 YTN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도약하는 경기도', '양극화', '다인종 다문화 시대', '에너지' 등의 주제로 47개팀 153명이 참가했으며 7개 팀이 수상했다.

'엔벤 방송국' 관계자 YTN 방문 (3.20)



엔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용근 회장 일행

물 사랑 캠페인 협약식 (3.21)



美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 취재기

충격, 그리고 또 충격

제 1충격

불길한 미래를 암시라도 하듯 오산 공군 기지에는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YTN을 포함해 KBS, 세계일보, 마이니치, 로이터, AFKN 등 내외신 pool 단을 구성한 20여 명의 기자단은 동해상(東海上)을 향하는 C2 수송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누어준 헬멧은 머리를 잔뜩 조이고,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의 충격을 잡아주기 위한 좌석 벨트는 온몸을 꽉 조여오고, 창문 없이 내부가 어둑어둑한 수송기에 1시간 30분이나 타고 600Km를 날아가려니 답답하고 불편했다. 무엇보다도 덩치가 작은 비행기라 조그만 기상 변화에도 심하게 요동치며 속을 울렁거리게 했다. 느긋거리는 속을 진정시키며, 드디어 항공모함에 착륙 직전. 영화 '탑 건'에서 보던 착륙할 때의 모습과 충격을 상상하며, 비행기 뒤쪽을 향하여 앉아있는 좌석의 등받이에 온몸이 쏟아져 내릴 듯 충격이 가해졌다. 짧은 2초의 시간. 비행기 뒤쪽의 갈고리가 항공모함에 설치된 쇠줄을 잡아채고 순식간에 비행기를 멈추어 서게 했다.

착륙 후 함장과 인사를 나누고, 이어 공보 장교의 안내에 따라 맨 처음 이동한 곳은 갑판 위. F-18 전투기의 엔진이 바로 코앞에서 불을 뿜었고, 갑판 위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전투기가 발진할 때는 굉음과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정말 영화에서 보던 대로 웅장하고 대단했다.

전투기 이착륙 모습을 취재한 후 관제실, 통제실, 함장 인터뷰 등 3시간 정도 취재를 끝내고 바야흐로 돌아갈 시간. 우리가 타고 온 C2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륙 때에도 충격이 대단하다는 설명을 들었던지라 벨트를 더욱 단단히 죄고, 양팔로 꽉 잡았다. 드디어 이륙. 단단하게 잡고 있던 비행기를 활시위 당기 듯 통 놓자, 착륙할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엄청난 충격을 순간 느끼며 몸이 붕 뜨면서 망망대해를 향한 회항이 시작되었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 출장 정리를 하며 즐거웠던 항



항모위에서 공보장교와 함께

공모함 취재를 곱씹으며 여유를 만끽할 생각에 젖어있던 잠시 후, 함께 탔던 미국 승무원이 일어서더니 "bulabula 'Back to ship' bulabula~~" 하는 것이 아닌가. '뻑 투 쉽'??? 비행기가 고장이라고? '오 마이 갓'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이제 30분만 더 가면 육지다' 라고 생각하며 뒤집어 질 것 같은 속을 달래며 간신히 참고 있었는데,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침이 꼳꼳딱 삼켜지고, 벨트는 온몸을 조여 왔다. 순간 따뜻한 기운이 용솟음쳐 올라오더니 짝악~~! 헉 이걸 아니잖아. 착륙 5분 전 난 속에 먹은 것을 확인하고 말았다. 웃웃과 바짓가랑이가 뜨뜻했다. 헐.

다시 배로 돌아와 허탈해 하는 기자단에게 함장은 비행기 고장으로 이륙할 수 없으니 내일 오전 부산항으로 함께 입항하자고 말했다. 데스크에 보고하려는 기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제 2충격

1박을 하며 항모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준 저녁 시간은 정말 선택받은 자만의 특권이었다. 언제 어느 누가 미국 최신 핵추진 항공모함의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던 말인가. 저녁 식사는 정말 진수성찬(珍羞盛饌)이었

다. 점심때는 샌드위치, 초콜릿 쿠키가 고작이더니, 저녁은 뷔페식으로, T-bone steak, 옥수수 튀김, 대게, 빵, 샐러드 바, 각종 음료수, 볶음밥, 피먹는 요구르트 등 푸짐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다. 흡사 패밀리 레스토랑에라도 온 것처럼 정말 맛있게 푸짐하게 먹었다. Medical center(의료실)나 Mechanical center(공작실) 등을 둘러보았고, 지하 격납고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공중조기경보기 등 대기 중인 전투기 등이 여러 대 보였다. 핵추진 설비 등도 보여 달라고 했으나 보안상 보여주지 않아 아쉬웠다. 다음날 오전 갑판 위에서 본 수 십대의 전투기들의 위용은 더욱 대단했다. 입항 전

이라 전투기들을 갑판 위에 정렬해 놓았는데, 마치 무기 전시장에라도 온 것처럼 다양하고 거대한 전투 비행기들이 자신만의 덩치를 자랑하며 힘찬 어깨를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기념 촬영도 하고, 갑판 위를 여한 없이 걸어보며 이 거대한 배 위에서 미국의 힘과 대단함에 충격이 가시질 않았다. 80여 대의 전투기, 우리나라에도 없는 공중조기경보기가 3대, 승선인원 5,000여명의 사단급 병력을 고작(?) 대령인 함장이 이끌고 있다니, 우리나라는 two star 여야 되는데... 웬만한 한 나라의 군사력이 큰 배 한 척에 모여 있다니 정말 대단한 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 개개인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그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런 충격을 안고 부산항에 입항, 제공해준 버스에 몸을 싣고 KTX를 타러 부산역으로 향했다.

※덧붙임 : 항모에는 여군이 참 많았다. 그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제식훈련도 하고, 함께 생활한다. 5000명의 사병 중 약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CVN-76' 라는 명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핵'을 뜻하는 nuclear의 'N'이 붙었으며, 76번째로 건조된 항공모함이며, 미국은 현재 77번째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에 있다. 대통령의 이름을 순서대로 붙이는 방식에 따라 'CVN-77, 조지 부시함' 이 될 예정이다.

윤원식 영상취재팀

게시판

- 포상**
특종상 금상
 김종균 차장대우 정치부-「이동통신사 위치추적서비스 불법영업 보도」
- 특종상 은상**
 손재호 차장대우·지대응 부산지구-「방사선 유출되는 생활용품 보도」
 이광엽 차장대우 경제부·지순한 사회1부-「'야후코리아' 음란물 동영상 게재 보도」
- 특종상 동상**
 윤현숙·진기호 대구지구-「미성년자 후견인 제도 문제점 집중 보도」
 이종구 사회1부, 최용호 영상취재팀, 「홍대 앞 외국인 추태 보도」
 이만수 사회1부, 이동규 영상취재팀, 「KT 개인정보 190만건 노출 보도」
- 우수프로그램상**
 지순한 사회1부, 이성모 영상취재팀, 조승희 차장대우 해외방송팀, 「다큐멘터리 3부작 <대한민국의 재벌전>」

- 공로상**
 조민철 해외방송팀-해외동포 시청자 설문조사 실시 공로 / 장태만 타워 운영팀-서울타워 사무실 임대 유치 공로 / 최남수 경영기획실장, 한영규 뉴미디어팀장, 류환홍 차장대우 뉴미디어팀, 최유식 기획팀, 박형일 차장대우 디지털기획팀, 한정호 차장대우 과학TV추진단, 김진두 차장대우 문화과학부, 백상기 차장대우 매체협력팀-사이언스TV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여 공로 / 양준모·최윤석 영상취재팀-해외출장시 내이비폰 이용한 비용 절감 공로 / 유근민 차장대우 제작기술팀, 강성웅 차장대우 사회1부-해외출장시 방송을 위한 HSDPA폰 시스템 구성 공로 / 김진국 중계팀-IP전송장비를 이용한 중계망 구성 공로 / 진민호 차장대우·우영택 춘천지구-지국에서 고난이도의 편집 업무 수행 공로 / 우장균 마케팅기획팀장, 최태선 마케팅기획팀, 강계현·신은영 디지털기획팀, 서정호 그래픽팀-광고 영업을 위한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 공로
- SO공로상**
 오유진 KCTV 제주방송 / 광근만 HCN 충북방송 / 이동근 HBC 호남방송 / 장효수 HCN 경북방송 2007. 4. 4

- 입사**
 최민영 그래픽팀 2.1 / 신동훈 기술연구소 3.19
- 퇴사**
 황지영 인사팀 2.27 / 심재영 마케팅위원 2.28 / 홍혜주 사업팀 3.16
- 전보**
 백동범 부국장대우 마케팅위원 3.20 / 황보연·정병화 뉴스기획팀, 김명숙 뉴스4팀 3.26
- 부음**
 이재홍 경제부 부친상 3.1 / 김대천 타워운영팀 빙모상 3.15 / 이상준 타워운영팀 부친상 3.13 / 박진수 영상취재팀 빙모상 4.2
- 결혼**
 강은정 재무회계팀 4.7

제2대 베이징 특파원(04.2~07.2) 귀임 인사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 근무를 마치고 귀임한지 벌써 한 달 반이 됐다. 베이징에서 보낸 3년은 참으로 빠르게 흘렀다. 그새 낯설어진 서울에 돌아와 처음엔 얼떨떨하다가 곧이어 안도감이 들었다. 중국은 거대한 땅 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다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중국 내 각 지역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차이가 크며 경제 발전은 쾌속이지만 정치, 행정의 변모는 더디다. 그래서 출장이나 여행과 달리 장기 거주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회사의 지원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돼 늘 감사한 마음이다.

중국에는 세계 각국의 특파원이 꽤 많지만 외국 매체의 중국 내 취재는 편리하지 않다. 리포트용 스탠드업을 할 때 천안문 백관을 많이 쓰는데, 그걸 진짜 천안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았다. YTN 애청자인 교민과 취재원들은 필자에게 천안문에 그렇게 자주 가냐고 묻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천안문 앞에서 스탠드업을 하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우선 천안문 관리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어느 나라의 어떤 매체이며 어떤 내용의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스탠드업을 하겠다고 알려야 한다. 오늘이나 내일 등 임박한 신청은 처리되지 않는다. 적어도 2~3일의 말미를 뒤야 한다. 그리고 관리위원회 측의 답신이 온다고 해서 곧바로 천안문에 가서 촬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당일 시각에 맞춰 먼저 천안문 부근에 위치한 관리위원회로 가서 취재 허가증을 받는다. 허가증에는 취재 시간과 형식이 기재돼 있다. 취재 허용 시간은 대개 30분인데 서두르지 않으면 관리위에서 한참 걸어서 천안문 앞으로 이동하고 적당한 위치를 잡다가 그만 시간을 넘기게 된다.

사전에 허가받지 않았을 경우 천안문 광장에서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하면 안 된다. “국경절 연휴에 며칠 쉬느냐?” “어디에 놀러가서 얼마를 쓸 계획이냐?” 는 사소한 질문도 허가받지 않았으면 안하는 것이 주중 외국 특파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번 시각을 다투는 보도를 하면서 천안문 광장에 직접 가서 스탠드업을 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상징 천안문은 우리나라 방송사 특파원 리포트에 주로 백관으로 등장하게 된다.

까다로운 천안문 취재 규정은 중국의 언론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베이징 특파원의 취재 허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베이징일 뿐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을 취재할 경우에는 각 성, 대도시마다 설치돼 있는 외사(外事) 관공실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취재 지역과 대상, 보도 내용이 미리 확인된다. 중국 당국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취재할 때는 정공법을 쓰기도 하지만 외사 담당 관계자의 눈을 속여 가며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별도 취재가 이뤄진다.

2005년 9월 중국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취재 초청을 받았다. 취재 주제는 ‘가짜 양주와의 전쟁’. 중국 짝퉁 제품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서방 국가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중국이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세계 40여개 매체가 참여한 이 취재에 한국 TV 방송사들도 대거 동참했다.

중국 당국은 텐진과 광둥성 광저우, 중산 등 각지를 돌며 가짜 양주 제조와 유통, 판매책을 단속한 사례와 증거물을 보여줬다. 그러나 매체들이 주목한 것은 강화된 단속이 아니라 가짜가 판치는 현실이었다. YTN 등 한국 방송사들도 중국산 가짜 양주 실태를 보도하는데 주력했다. 여기에 가짜의 본산지로 유명한 광둥성의 각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인민대회당 앞에서
싼샤림(삼협팀) 취재 때 ▶



종 짝퉁 유통 실태를 추가로 취재해 몇 편의 시리즈로 내보냈다. 세계적 브랜드의 가방, 가죽 제품, 신발, 손목시계, 술, 골프채 등이 대량 유통되고 있었다.

처음부터 취재 초청자와 참가자의 의도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렇다 보니 중국 당국이 마련한 일정은 가짜 제조책과 단속 관계자 인터뷰, 압수한 증거물 창고 공개 정도만 보도에 도움이 됐을 뿐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출장 기간 내내 중국 당국의 의도를 벗어난 별도 취재가 불가피했다. 특히 처지와 판단이 비슷한 한국 방송사들은 서로 잘 협력해서 꽤 충실한 현장 보도를 할 수 있었다.

중국의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지난해 티베트 취재는 느낌이 특별했다. 칭하이성 시닝을 출발해 세계 최고 높이(해발 5072m)의 탕구라 역을 지나 티베트 라싸로 가는 ‘칭짱선 철도’ 개통이 계기가 됐다. 베이징발 라싸행 열차는 무려 48시간이 걸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닝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했다. 시닝-라싸 간 열차도 무려 26시간이 걸렸다. 호흡곤란과 두통, 구토 등 고산 증세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베이징 특파원들이 참가해 티베트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했다. 티베트인의 생김새와 생활, 문화를 살펴보고 이색적인 풍경에 빠져들면서 티베트와 중국은 전혀 다른 곳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티베트는 철저히 중국에 속해 있다. 동북 공정과 유사한 서남 공정은 이미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티베트에 대한 한국 언론의 접근 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불꽃 취재’가 이뤄졌다. 필자는 출발 전 2분 15초 길이의 6편 가량의 시리즈 리포트를 기획했다. 7박 8일 간의 장기 일정이지만 이동 시간이 너무 많아 취재는 빠듯했다. YTN 출범 이후 첫 티베트 취재이기도 하고 언제 다시 올까 싶어서 욕심껏 일정을 잡았다. 베이징 지국 카메라맨 곽광은 고산증에 시달리면서도 티베트의 다양한 화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티베트인들은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뷰는 대부분 티베트어와 중국어 통역으로 진행됐다. 촬영 테이프 양이 더욱 늘어났다.

취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 리포트를 만들어 두어 편 내보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림이 꽤 참으니 20~25분 짜리 티베트 특집물을 하나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베이징 지국의 간이 장비로는 리포트 편집도 간단치 않은데 특집이라니... 거기에 특집용으로 쓸 만한 스탠드업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상부’의 지시라고 하니 여건이 미흡해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완

성도는 떨어지겠지만 그림은 충분히 있으니 될 것도 같았다. 결국 일부 장비의 보충과 국제부와 김정아 앵커의 도움에 힘입어 ‘One Source Multi Use’를 실천하는 본사 방침에 따라 23분 짜리 추석 특집물을 만들 어낼 수 있었다.

티베트는 언론 취재가 어려운 특수 지역이다. 중국 당국의 허가 범위에서만 취재가 가능하고 제약도 많다. 지난해 취재는 중국 당국이 칭짱 철도 개통을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특히 한국 언론사들은 유일하게 별도의 초청을 받아 타국 특파원들의 부러움과 불만을 샀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수교 15주년을 맞아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한중 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듯 했다.

3년 만에 돌아와 보니 제고된 YTN의 위상을 실감한다. 매체 영향력과 경영도 상승세이다. 베이징 지국을 봐도 격세지감이 있다. 특파원 부임 직후 제2차 6자회담과 김정일 위원장 방중, 룡천역 폭발사고를 잇따라 겪었을 때는 지국에 촬영 기능이 없어서 마음고생이 컸다. 룡천 사고가 나자 북한과 중국의 접경인 단둥시에서 취재 경쟁이 붙었다. 류재복 현 베이징 특파원과 영상취재부 김태운 후배가 본사에서 파견돼 단둥에서 합류했는데 회사에서 배편으로 화면을 전송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경쟁사들은 화면 전송 장비를 갖고 와서 매일 다른 내용을 송출하고 있는데 화면과 스탠드업을 단둥-인천 간 배편으로 보내라니... 황당했지만 현실이었다. 곡절 끝에 어딘가에서 파격적인 도움을 받아 일부 화면과 스탠드업을 보내긴 했지만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뒤에는 FTP 화면 전송이 본격화되고 현지 카메라 맨도 채용됐다.

베이징 특파원 파견 4년여 만에 지국 사무실도 개설됐다. 중국의 인터넷 여건이 미비해 아직도 원활한 화면 전송에 애로를 겪고 있지만 안정성과 속도가 개선되고 있다. 이후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서 시청자가 급증했다. 대부분 위성파와 인터넷을 통해 YTN을 접한다. 제3대 특파원이 파견된 베이징 지국은 요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 것 같다. 워싱턴과 도쿄, 베이징에 이어 최근 뉴욕에도 특파원이 파견돼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YTN 전체가 성실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곳에서 세계 소식을 전하고 정규 영상 특파원도 파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김태현 차장대우 국제부